

魏晉時代의 外治療法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文字尙 · 金恩瑕 · 李丙旭*

A Study of External Treatment History in Wei(魏) Dynasty and Jin(晉) Dynasty

Dept.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nny university
Woo Sang Moon · Eun Ha Kim · Byung Wook Lee

1) Objective

External treatments have various curative effects. So it had been used to cure various patients. But, it has a limited sphere of application in the present South Korea. Therefore we would like to bring out its sphere of application and detailed method in the oriental medicine classics.

2) Conclusions

From long time ago people have used external treatment to cure various disease. According to the 『Nei-Jing』, hot compress therapy, fumigation therapy and bathing therapy had been used to cure blockage syndrome, muscle disease, carbuncle and cellulitis. Thereafter, a sphere of external treatment had gradually enlarged.

(1) After all its sphere had included dermatologic, psychologic, internal, ophthalmic, otolaryngologic, obstetrics, gynecologic, pediatric and surgical diseases.

(2) External treatment methods have contained hot compress therapy, fumigation therapy, bathing therapy, application therapy, medication bag therapy, medication plug therapy, medication massotherapy, aroma therapy and so on.

(3) Medication types of external treatment have contained ointment, juice, infusion, powder, suppository and so on.

key words : Mai-Jing 『脈經』, Zhou-Hou-Bei-Ji-Fang 『肘後備急方』, External treatment

I. 序論

外治療法은 기존의 內治와 상반된 개념의 용어로써 한의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藥을 구강을

통해서 胃腸管에 투여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皮膚나 呼吸器 등 九竅에 다양한 자극의 방법을 통하여 治療 效果를 誘導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氣功, 鍼灸治療, 기타 物理療法 등도 모두 포함된다¹⁾.

* 교신저자 : 李丙旭, 대구 수성구 상동 165번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053) 770-2265, omis@dhu.ac.kr

1) 申光浩, 韓醫外治療法學, 대성의학사, 서울, 2000, pp. 3-4.

고대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약물을 복용하는 내치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치법을 응용하였다. 전통의학에서 초기에 가장 많이 사용한 외치법에는 按摩, 鍼砭, 熱熨, 뼈의 손상에 따른 整形 및 藥物을 이용한 외치법을 포함하고 있다²⁾. 외치요법에 대한 기록은 『山海經』의 “薰草, 麻葉而方莖, 赤華而黑實, 臭如薜蘿, 佩之可以已癘”³⁾라 하여 향기가 나는 풀을 차고 다님으로써 疫病을 물리친다는 내용을 효시로 볼 수 있으며, 醫書中 韓醫學의 經典인 『黃帝內經』에서는 “황제께서 寒痺症을 자침하여 내부를 따뜻하게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자, 伯高는 서민(布衣)을 자침할 경우에는 火針으로 뜸질하고, 公肩大부(大人)를 자침할 경우에는 藥으로 찜질을 함께 합니다”라고 하였다.”⁴⁾라 하여 寒痺를 藥熨法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金元四大家 중 張從政은 『儒門事親』에 「兼治於外者」와 「獨治於外者」라는 門을 두어 “芒硝半錢, 青黛半錢, 乳香沒藥各少許, 右爲細末, 鼻內啼之”⁵⁾등의 外治法을 소개하였다. 특히 清代 徐大椿은 『徐靈胎醫書全集·醫學源流論·湯液不足盡病論』에서 氣聚血結의 질환에 대한 외치요법의 효능에 대하여 찬양하였다⁶⁾⁷⁾. 또한 吳尚先은 “外治의 이치가 곧 內治의 이치이고, 外治藥이 곧 內治藥이며 방법만 다를 뿐이다.”⁸⁾라고 하였다⁹⁾.

外治療法에 대한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외치요법은 外科 疾患 뿐만 아니라 內科 질환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의 많은 의가들은 외치법으로 內證을 치료하는 기능을 점차로 홀시하고 外科 疾患治療에만 專用하였으며 역대의 외치법에 대한 내용은 세월이 흐를수록 專門인 내용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한의학에서도 각종 외치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97년 대한한의학회 한의외치제형학회가 설립되고 2003년 1월 현재 약 7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외치요법에 관한 연구는 아직 특정질환에 대한 몇몇의 연구¹⁰⁾¹¹⁾와 부분적인 시대고찰¹²⁾¹³⁾ 및 저서 몇 권¹⁴⁾¹⁵⁾ 뿐이다. 따라서 고인들의 외치요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소개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약물을 이용한 외치요법에 대하여 시대별로 외치요법의 활용범위, 外治劑의 형태상의 특징, 외치요법에 대한 이론적 수준 등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현재 한의학에서 치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내복약, 침구치료, 물리치료 이외도 외치요법이라는 치료영역을 개발하고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한의학의 치료역량과 영역을 더욱 넓히고자 한다.

이에 외치요법에 관한 시대적 고찰을 하는 과

“外治之理, 卽內治之理, 外治之藥, 卽內治之藥, 所異者法耳.”

2) 박현국 외2인, 중국과학기술사의학편, 일증사, 서울, 2003, p. 62.
 3) 정재서, 산해경, 민음사, 1997, p. 74.
 4) 金達鎬, 注解補注黃帝內經靈樞, 醫聖堂, 서울, 2002, p. 206.
 “黃帝曰, 刺寒痺, 內熱奈何, 伯高答曰, 刺布衣者, 以火焮之, 刺大人者, 以藥熨之.”
 5) 구병수, 이동원, 儒門事親, 동국대학교출판부, 서울, 2001, p. 477.
 6)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五洲出版社圖書有限公司, 台北, 미상, p. 85.
 “人之疾病, 若其病既有定所, 在皮膚筋骨之間, 可安而得之者, 用藥膏貼之, 閉塞其氣, 使其藥性從毛孔入腠理, 通經貫絡, 較之服藥尤有力. 或提而出之, 或攻而敗之, 較之服藥尤有力. 此至妙之法也. 故凡病之氣聚血結而有形者, 薄貼之法爲良.”
 7) 任玉讓, 中醫內治與外治, 世界圖書出版公司, 西安, 2000, p. 347.
 8) 吳尚先, 理論駢文,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7, p. 8.

9) 이병욱 외4인, 千金要方에 기재된 藥浴療法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17(1),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4, p. 198.
 10) 권일해, 정진홍, 유방질환에 관한 침구치료와 외치요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논문집10(1),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2001, pp. 67-78.
 11) 김미정, 정진홍, 대하에 대한 침구치료와 외치요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논문집10(1),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2001, pp. 79-92.
 12) 박대열, 고우신, 마왕퇴의시·황제내경·금궤요략에 나타난 중국 고대 외치요법, 동의생리병리학회지16(4), 대한동의생리학회·대한동의병리학회, 2002, pp. 617-625.
 13) 金宰弘, 金賢兒: 吳師機의 外治法 思想에 대한 研究, 대한외관과학회지12(1), 대한외관과학회, 1999, p. 270.
 14) 申光浩, 韓醫外治療法學, 대성의학사, 서울, 2000.
 15) 申光浩, 漢方外用藥, 열린책들, 서울, 1994.

정에서 魏晉의 외치요법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던 중 『脈經』과 『肘後備急方』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脈經』은 현존하는 魏晉時代의 저술이며 최초의 맥진 전문서이다. 이 책의 자서에서 “이제 나는 기백 이래로부터 화타까지 편집하여 경전이론의 주요 치병방법을 한데 모아 10권으로 만들었다. 각종 질병의 병인과 병리를 분류하여 배열하고, 望聞問切을 완비하지 않음이 없다. 그 중에 王, 阮, 傅, 戴, 關, 葛, 呂, 張 여덟 의가들이 전수한 의학이론의 차이도 모두 기재하였다”¹⁶⁾고 하였으니, 佚失되고 전해지지 않은 수많은 고대 의학지식 및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古醫籍의 내용 모두 『맥경』을 통하여 그 단서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맥진 전문서임에도 불구하고 『內經』과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러 서적들의 흔적에서 외치요법의 단서를 찾고자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肘後備急方』은 晉代의 葛洪이 저술한 의서로서 당시의 실질적인 의료수준을 반영한 현존하는 대표적인 임상의서에 속한다. 따라서 당시의 외치요법의 수준과 방법 이론 등을 연구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I. 本 論

1. 『脈經』

王叔和가撰한 『맥경』은 현존하는 최초의 맥진 전문서이며, 중국 의학발전사에 있어서 왕숙화 『맥경』의 중요한 지위는 앞서사람들의 경험을 총괄하여 독립된 맥진체계를 세우는 역사적인 사명을 이 책에서 완수한 것이다. 대체로 魏晉 이전의 맥진 이론이 『맥경』에 모두 나타나 있다. 이 책의 자서에서 “이제 나는 기백 이래로부터 화타까지 편집하여 경전이론의 주요 치병방법을 한데 모아 10권으로 만들었다. 각종 질병의 병인

과 병리를 분류하여 배열하고, 望聞問切을 완비하지 않음이 없다. 그 중에 王, 阮, 傅, 戴, 關, 葛, 呂, 張 여덟 의가들이 전수한 의학이론의 차이도 모두 기재하였다”¹⁷⁾고 하였다. 佚失되고 전해지지 않은 수많은 고대 의학지식(예를 들면 扁鵲脈學의 내용) 및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古醫籍(예를 들면 『脈法贊』, 『四時經』)의 내용 모두 『맥경』을 통하여 그 단서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맥진 전문서임에도 불구하고 『內經』과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러 서적들의 흔적에서 외치요법의 단서를 찾고자 현존하는 魏晉時代의 대표저작인 『脈經』의 외치요법을 연구하였다.

1) 외치의 관련내용 및 활용범위

(1) 「平三關病候并治宜」

“寸口脈浮, 中風, 發熱, 頭痛. 宜服桂枝湯葛根湯, 針風池風府, 向火灸身, 摩治風膏, 覆令汗出.”¹⁸⁾

“寸口脈緊, 苦頭痛骨肉痛, 是傷寒. 宜服麻黃湯發汗, 針眉衝顛顛, 摩治傷寒膏.”¹⁹⁾

“寸口脈微, 苦寒, 爲衄, 宜服五味子湯, 摩茱萸膏, 令汗出.”²⁰⁾

“寸口脈緩, 皮膚不仁, 風寒在肌肉, 宜服防風湯, 以藥薄熨之, 摩以風膏, 灸諸治風穴.”²¹⁾

(2) 「病不可下證」

“陽明病, 自汗出, 若發其汗, 小便自利, 此爲內竭, 雖堅不可攻之. 當須自欲大便, 宜蜜煎導而通之. 若土瓜根, 及豬膽汁, 皆可以導.”²²⁾

16)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7. “今撰集岐伯以來, 逮于華佗, 經論要訣, 合爲十卷. 百病根源, 各以類例相從, 聲色証候, 靡不該備其王阮傅戴關葛呂張所傳異同咸悉載錄.”

17)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7. “今撰集岐伯以來, 逮于華佗, 經論要訣, 合爲十卷. 百病根源, 各以類例相從, 聲色証候, 靡不該備其王阮傅戴關葛呂張所傳異同咸悉載錄.”

18)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69.

19)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69.

20)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69.

21)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69.

22)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394.

(3) 「病可火證」

“下利，穀道中痛，當溫之以火，宜熬末鹽熨之。一方炙枳實熨之。”²³⁾

(4) 「平痙濕喝脈證」

“病人喘，頭痛，鼻塞而煩，其脈大，自能飲食，腹中和，無病。病在頭，中寒濕，故鼻塞，內藥鼻中即愈。”²⁴⁾

(5) 「平陽毒陰毒百合狐惑脈證」

“狐惑爲病，其狀如傷寒，默默欲眠，目不得閉，臥起不安，蝕於喉，爲惑。蝕於陰，爲狐。狐惑之病，并不欲飲食，聞食臭，其面目乍赤乍白乍黑，其毒蝕於上部，則聲喝，其毒蝕於下部者，則咽乾。蝕於上部，瀉心湯主之。蝕於下部，苦參湯洗之，蝕於肛者，雄黃熏之。”²⁵⁾

(6) 「平陰中寒轉胞陰吹陰生瘡脫下證」

“婦人陰寒，溫中坐藥，蛇床子散主之”²⁶⁾
 “婦人陰中蝕瘡爛狼牙湯洗之”²⁷⁾

『脈經』에서는 外感發熱症, 衄血症, 皮膚不仁, 大便難, 肛門疾患, 陰部疾患, 鼻疾患에 외치요법을 사용하여 치료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2) 外治劑의 종류

『脈經』에서는 膏劑를 이용한 治風膏²⁸⁾, 傷寒膏²⁹⁾, 茱萸膏³⁰⁾, 風膏³¹⁾의 치법이 기재되어 있으

나 膏의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으며, 湯劑 혹은 汁液을 이용한 防風湯³²⁾, 蜜煎導³³⁾, 土瓜根汁³⁴⁾, 豬膽汁³⁵⁾, 苦參湯³⁶⁾, 狼牙湯³⁷⁾의 치법이 기재되어 있으며, 散劑를 이용한 末鹽³⁸⁾, 蛇床子散³⁹⁾의 치법이 기재되어 있고, 枳實⁴⁰⁾과 雄黃⁴¹⁾을 약물의 원래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病人喘，頭痛，鼻塞而煩，其脈大，自能飲食，腹中和，無病。病在頭，中寒濕，故鼻塞，內藥鼻中即愈。”⁴²⁾와 같이 약물의 형태와 명칭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시술방식만을 언급한 내용도 있었다.

3) 外治의 방법 및 이론

『脈經』에는 摩, 熏, 導, 熨, 洗, 坐藥의 방법을 이용한 치료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寸口脈緩，皮膚不仁，風寒在肌肉，宜服防風湯，以藥薄熨之，摩以風膏，灸諸治風穴。”⁴³⁾이라 하여 風寒邪가 肌肉에 있을 때 外治療法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외치요

p. 69.

31)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69.

32)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69.

33)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394.

34)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394.

35)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394.

36)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499.

37)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631.

38)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462.

39)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631.

40)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462.

41)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499.

42)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492.

43)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69.

23)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462.

24)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492.

25)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499.

26)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631.

27)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631.

28)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上揭書: p. 69.

29)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 69.

30)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법의 적용범위가 『金匱要略』에서 제시한 九竅不利 보다 좀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內經』의 “外者外治”가 좀더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內經』에서 언급한 ‘外’의 의미를 체표의 病所를 뜻하는 해부학적 부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며, 내과질환에 대한 외치요법의 치료기전에 대해서는 설명되고 있지 않다.

2. 『肘後備急方』

『肘後備急方』은 晉代의 葛洪이 저술한 의서이다. 이 책은 원래 『肘後救卒方』⁴⁴⁾이라 하고 『肘後方』⁴⁵⁾이라 약칭한다. 梁代 陶弘景이 이를 증보하여 『肘後百一方』이라 명명하였다. 오늘날의 것은 金代 楊用道の 증보를 거쳐 『附廣肘後方』이라 제목을 붙인 판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의 기원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구분할 수 있다. 元代 刻本부터 대부분 『肘後備急方』이라 명명하여⁴⁶⁾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⁴⁷⁾. 전서는 원래 73篇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3篇의 내용을 잃어버려 70篇의 내용으로 연구를 하였다. 또한 현재 통용되는 肘後備急方의 내용 중 후대에 증보된 내용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晉代의 내용만을 추려 연구하였다.

갈홍은 또한 有神論의 宗教家이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 ‘氣’와 같은 한의학적 개념 이외에 ‘鬼神’과 같은 것 또한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도 많았다. 따라서 그가 기록한 외치요법 중에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것도 많았으나, 「救卒中惡死方」에서의 “又方, 割雄鷄頸取血, 以塗其面, 乾復塗, 并以灰, 齎死人一周.”⁴⁸⁾와 같이 외치요법과 주술의 경계에서 주술에 가까운 내용의 기록 또한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혈액을 이용한 외치요법 중에

서 주문을 외우거나 「治卒毒及狐溺棘所毒方第五十二」의 “又方, 以婦人月經, 傳上, 最良, 姚云, 神效.”⁴⁹⁾와 같이 주술치료가 확실한 경우는 연구통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 외치의 관련내용 및 활용범위

(1) 「救卒中惡死方第一」

“又方, 以綿漬好酒中, 須臾, 置死人鼻中, 手按令汁入鼻中, 并持其手足, 莫令驚.”⁵⁰⁾ 등

(2) 「救卒死尸蹶方第二」

“此亦全是魏大夫傳中扁鵲法, 卽趙太子之患, 又張仲景云, 尸一蹶, 脈動而無氣, 氣閉不通, 故靜然而死也. 以菖蒲屑內鼻兩孔中, 吹之, 令人以桂屑著舌下, 又云扁鵲法, 治楚王效.”⁵¹⁾ 등

(3) 「救卒客忤死方第三」

“又方, 末細辛, 桂, 分等, 內口中.”⁵²⁾ 등

(4) 「治卒得鬼擊方第四」

“又方, 以淳酒, 吹內兩鼻中.”⁵³⁾

(5) 「治卒寤寐不寤方第五」

“又方, 以蘆管吹兩耳, 并取病人髮二七莖, 作繩納鼻孔中, 割雄鷄冠取血, 以管吹入咽喉中, 大效.”⁵⁴⁾ 등

(6) 「治卒中五尸⁵⁵⁾方第六」

“又飛尸入腹刺痛死方, 凡犀角, 射罔, 五注丸, 並是好藥, 別在大方中, 治卒有物在皮中, 如蝦蟇, 宿昔下入腹中, 如桮不動搖, 掣痛不可堪, 過數日卽煞人方. 巴豆十四枚, 龍膽一兩, 半夏, 土瓜子各一兩,

49)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214.

50)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

51)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5.

52)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6.

53)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8.

54)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9.

55)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1. “飛尸, 通尸, 風尸, 尸注也. 今所載方兼治之.”

56)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2. “飛尸者, 遊走皮膚, 洞穿藏府, 每發刺痛, 變作無常也. 通尸者, 附骨入肉, 攻鑿血脈, 每發不可得近, 見屍喪, 聞哀哭便作也. 風尸者, 淫躍四肢不知痛之所在, 每發昏沈, 得風雪便作也. 沈尸者, 纏結藏府, 衝心腸, 每發絞切, 遇寒冷便作也. 尸注者, 舉身沈重, 精神錯雜, 常覺惛廢, 每節氣改變, 輒致大惡. 此一條別有治後藥也.”

44) 이 책의 原序 및 『舊唐書·經籍志』 등에 나타남.

45) 『隋書·經籍志』 등에 나타남.

46) 岡西爲人, 宋以前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1958년, 730~748쪽.

47) 前掲書, 중국과학사술사의학편, p. 342.

48)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2.

桂一斤半，合搗碎，以兩布囊貯，蒸熟，更番以熨之，亦可煮飲，少少服之。”⁵⁷⁾ 号

(7) 「治尸注鬼注方第七」

“又有華佗狸骨散，龍牙散，羊脂丸諸大藥等，並在大方中，及成帝所受淮南丸，並療疰易滅門，女子小兒多注車，注船，心悶亂，頭痛吐，有此疹者宜辟方。車前子，車下，李根皮，石長生，徐長卿各數兩，分等，蠶搗，作方囊，貯半合，繫衣帶及頭，若注船，下暴慘，以和此共帶之，又臨入船，刻取此船，自燒作屑，以水服之。”⁵⁸⁾

(8) 「治卒心痛方第八」

“又方，蒸大豆，若煮之，以囊貯，更番熨痛處，冷復易之。”⁵⁹⁾ 号

(9) 「治心腹俱痛方第十」

“又方，桂二兩切，以水一升二合，煮取八合，去滓，頓服，無桂者，著乾薑亦佳。”⁶⁰⁾

(10) 「治卒霍亂諸急方第十二」

“又方，煮苦酒三沸以摩之，合少粉尤佳，以絮胎縛，當從膝下至足。”⁶¹⁾ 号

(11) 「治傷寒時氣溫病方第十三」

“毒病攻喉咽腫痛方，切當，陸，炙令熱，以布藉喉，以熨布上，冷復易。”⁶²⁾ 号

(12) 「治瘴氣疫溫毒諸方第十五」

“太乙流金方，雄黃三兩，雌黃二兩，礬石，鬼箭各一兩半，殺羊角二兩，搗爲散，三角絳囊，貯一兩帶心前并門戶上，月旦青布裹一刀圭，中庭燒溫，病人亦燒燻之，即差。”⁶³⁾ 号

(13) 「治寒熱諸瘧方第十六」

“又方，臨發時，搗大附子下篩，以苦酒和之，塗背上。”⁶⁴⁾

(14) 「治卒得驚邪恍惚方第十八」

“治女人與邪物交通，獨言獨笑，悲思恍惚者，末雄黃一兩，以松脂二兩溶，和虎爪攪，令如彈丸，夜

內火籠中燒之，令女人寢坐其上，被急自蒙，唯出頭耳，一次未差，不過三劑，過自斷也。”⁶⁵⁾

(15) 「治中風諸急方第十九」

“又方，取空青末，著口中，入咽即愈，姚同。”⁶⁶⁾

(16) 「治卒風瘡不得語方第二十」

“又方，礬石，桂末，綿裹如棗，內舌下，有唾出之。”⁶⁷⁾ 号

(17) 「治卒身面腫滿方第二十四」

“又方，赤豆，麻子合搗，以傅，腫上。”⁶⁸⁾ 号

(18) 「治卒心腹癢堅方第二十六」

“又方，多取當，陸根搗蒸之，以新布藉腹上，藥披著布上，腹上，冷復之，晝夜勿息。”⁶⁹⁾ 号

(19) 「治胸膈上痰癢諸方第二十八」

“又方苦參，桂，半夏等分，搗，下篩，苦酒和以塗痛，則差。”⁷⁰⁾ 号

(20) 「治卒胃反嘔哕方第三十」

“又方，以物刺鼻中各一分來許，皂莢內鼻中，令嚏，差。”⁷¹⁾ 号

(21) 「治卒患腰脇痛諸方第三十二」

“又方，芫花，菊花等分，躑躅花半斤，布囊貯，蒸令熱，以熨痛處，冷復易之。”⁷²⁾ 号

(22) 「治虛損羸瘦不堪勞動方第三十三」

“治卒連時不得眠方，暮以新布火炙以熨目，并蒸大豆，更番囊貯枕，枕冷復更易熱，終夜常枕熱豆，即立愈也。”⁷³⁾

(23) 「治癰疽妬乳諸毒腫方第三十六」

“又方，搗黃檗末，篩，雞子白和，厚塗之，乾復易，差。”⁷⁴⁾ 号

(24) 「治卒發丹火惡毒瘡方第三十八」

“又方，取蛇床子合黃連二兩，末，粉瘡上燥者，猪脂和，塗，差。”⁷⁵⁾ 号

57)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4.

58)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4.

59)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6.

60)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23.

61)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30.

62)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41.

63)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54.

64)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57.

65)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64.

66)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67.

67)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77.

68)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95.

69)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02.

70)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08.

71)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14.

72)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24.

73)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27.

74)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37.

75) 葛洪, 葛洪時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56.

(25) 「治癩癬疥漆瘡諸惡瘡方第三十九」

“卒得惡瘡，蒼耳，桃皮作屑，內瘡中，佳。”⁷⁶⁾ 号

(26) 「治卒得癩皮毛變黑方第四十」

“又方，艾千莖，濃煮，以汁漬麴作酒，常飲使醺醺，姚同，姚方，大蝮蛇一枚，切勿令傷，以酒漬之，大者一斗，小者五升，以糠火溫，令熟，乃，取蛇一寸許，以臘月猪膏和，傅瘡，差。”⁷⁷⁾

(27) 「治卒得蟲鼠諸瘻方第四十一」

“葛氏卒得鼠瘻，有瘰癧未發瘡而速熱者，速療方，搗烏雞足，合車前草，傅之。”⁷⁸⁾ 号

(28) 「治卒陰腫痛類卵方第四十二」

“又方，搗蕪菁根，若馬鞭草，傅，並良，姚同。”⁷⁹⁾ 号

(29) 「治目赤痛暗味刺諸病方第四十三」

“傷寒方末，亦有眼方，姚方，目中冷淚出眦，赤痒，乳汁煎方，黃連三分，葵仁二分，乾薑四分，以乳汁一升，漬一宿，微火煎取三合，去滓，取米大，傅眦。”⁸⁰⁾

(30) 「治卒耳聾諸病方第四十四」

“姚氏，耳痛有汁出方，熬杏仁令赤黑，搗如膏，以綿裹塞耳，日三易，三日即愈。”⁸¹⁾ 号

(31) 「治面皴髮禿身臭心昏鄙醜方第四十九」

“又方，三歲苦酒，漬雞子三宿，軟取白，以塗上。”⁸²⁾ 号

(32) 「治爲熊虎爪牙所傷毒痛方第五十」

“又方，嚼粟，塗之，姚同。”⁸³⁾ 号

(33) 「治卒有獠犬凡所咬毒方第五十一」

“又方，搗薤汁傅之，又飲一升，日三，瘡乃差。”⁸⁴⁾ 号

(34) 「治卒毒及狐溺棘所毒方第五十二」

“人體上先有瘡而乘馬，馬汗，若馬毛入瘡中，或

但爲馬氣所蒸，皆致腫痛煩熱，入腹則殺人，燒馬鞭皮，末，以膏和，傅上。”⁸⁵⁾ 号

(35) 「治卒青蛙蝮虺衆蛇所螫方第五十三」

“又方，搗小蒜飲汁，以滓，傅瘡上。”⁸⁶⁾ 号

(36) 「治蛇瘡敗蛇骨刺人入口繞身諸方第五十四」

“蛇螫人，瘡已合而餘毒在肉中，淫淫痛痒方，取大小蒜各一升，合搗，熱湯淋取汁，灌瘡中，姚同。”⁸⁷⁾ 号

(37) 「治卒蜈蚣蜘蛛所螫方第五十六」

“又方，嚼大蒜，若小蒜，或桑樹白汁，塗之，亦以麻履底土，揩之，良。”⁸⁸⁾ 号

(38) 「治卒蝨螫方第五十七」

“又方，取屋霑下土，水和，傅之。”⁸⁹⁾ 号

(39) 「治卒蜂所螫方第五十八」

“蜂螫人，取人尿洗之。”⁹⁰⁾ 号

(40) 「治卒蠍所螫方第五十九」

“又方，按馬莧，大蒜，又嚼乾薑，塗之，佳，姚方以冷水漬螫處，即不痛，水微煖，便痛，即易水，又以冷漬故布，搦之，數易。”⁹¹⁾ 号

(41) 「治中蠱毒方第六十」

“又方，以猪膽瀝內下部中，以綿深導內塞之。”⁹²⁾ 号

(42) 「治卒中溪毒方第六十一」

“又方，常思草，搗絞，飲汁一二升，并以綿染寸中，以導下部，日三過，即差。”⁹³⁾ 号

(43) 「治卒中射工水弩毒方第六十二」

“又方，葫蒜，令傅以搦瘡上，灸蒜上千壯差。”⁹⁴⁾ 号

(44) 「治卒中沙虱毒方第六十三」

“又方，斑猫二枚，熬一枚，末，服之，燒一枚，令

76)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 157.

77)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 166.

78)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 169.

79)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 171.

80)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 179.

81)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p. 184-185.

82)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 196.

83)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 211.

84)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 212.

85)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p. 214-215.

86)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 217.

87)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 220.

88)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 222.

89)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 226.

90)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 226.

91)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 227.

92)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 230.

93)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 233.

94) 葛洪 葛洪肘後備急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p. 235.

絶烟, 末, 以傅瘡上, 卽差, 又以射, 罔傳之, 佳.”⁹⁵⁾ 등

(45) 「治食中諸毒方第六十六」

“蜀椒閉口者有毒, 戟人咽, 氣便欲絶, 又令人吐白沫, 多飲桂汁若冷水一二升, 及多食大蒜, 即便愈, 慎不可飲熱, 殺人, 比見有中椒毒, 含蒜及薺苳, 差.”⁹⁶⁾

(46) 「治百病備急丸散膏諸要方第六十九」

“姚大夫, 辟瘟病粉身方, 芎藭, 白芷, 藁本, 三物等分, 下篩, 內粉中, 以塗粉於身, 大良.”⁹⁷⁾ 등

(47) 「治牛馬六畜水穀疫癘諸病方第七十」

“疥, 以樗根末和麻油塗, 先以皂莢或米泔淨洗之, 洗了塗, 令中間空少許, 放蟲出不得, 多塗恐瘡大.”⁹⁸⁾ 등

『肘後備急方』에서의 활용범위를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이 된 『肘後備急方』 70개 편중에서 47개의 편에서 외치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葛洪이 위급상황에서 외치요법의 효용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외치요법이 특히 많이 언급된 편은 「治癰疽妬乳諸毒腫方第三十六」, 「治面皴髮禿身臭心忤鄙醜方第四十九」, 「治傷寒時氣溫病方第十三」, 「治卒陰腫痛頰卵方第四十二」, 「治癩癬疥漆瘡諸惡瘡方第三十九」, 「治百病備急丸散膏諸要方第六十九」, 「治卒耳聾諸病方第四十四」 등이었다. 이 편들은 외과질환, 피부질환, 외감질환, 생식기질환, 오관과 질환을 대표하는 증상들에 대한 치법을 언급한 것들로써 『金匱要略』이나 『脈經』에서 外治療法을 이용하여 치료했던 질병 분류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전 시대에 외치요법을 사용했던 영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외치요법이 사용되었음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서적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治卒中沙虱毒方第六十三」의 “又方, 斑猫二枚, 熬, 一枚, 末, 服之, 燒一枚, 令絶烟, 末, 以傅瘡上, 卽差, 又以射, 罔傳之, 佳.”⁹⁹⁾와 같은 기

생충질환, 「治卒癡寐不寤方第五」의 “又方, 以蘆管吹兩耳, 并取病人髮二七莖, 作繩納鼻孔中, 割雄鷄冠取血, 以管吹入咽喉中, 大效.”¹⁰⁰⁾와 같은 신경정신질환, 「治卒心痛方第八」의 “又方, 蒸大豆, 若煮之, 以囊貯, 更置熨痛處, 冷復易之.”¹⁰¹⁾와 같은 내과잡병질환, 「治百病備急丸散膏諸要方第六十九」의 “神明白膏, 療百病, 中風惡氣, 頭面諸病, 青盲, 風爛眦鼻, 耳聾, 寒齒痛, 癰腫, 疽痔, 金瘡, 癩疥, 悉, 主之. 當歸, 細辛各三兩, 吳茱萸, 芎藭, 蜀椒, 前胡, 白芷各一兩, 附子三十枚, 九物切, 煎猪脂十斤, 炭火煎一沸卽下, 三上, 三下, 白芷黃, 膏成, 去滓, 密貯, 看病在內, 酒服如彈丸一枚, 日三, 在外皆摩傅之, 目病, 如黍米內兩眦中, 以目向天風可扇之, 瘡蟲齒, 亦得傅之, 耳內底著亦療之, 緩, 風冷者, 宜用之.”¹⁰²⁾와 같은 치과질환, 「治牛馬六畜水穀疫癘諸病方第七十」의 “疥以樗根末和麻油塗, 先以皂莢或米泔淨洗之, 洗了塗, 令中間空少許, 放蟲出不得, 多塗恐瘡大.”¹⁰³⁾와 같은 가축의 질환 등에 대한 외치요법을 기재함으로써 외치요법의 사용 영역이 다소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外劑의 종류

『肘後備急方』에 기재된 외치요법에는 膏, 散, 湯, 汁 및 약물의 원형 그대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방제를 그대로 외치요법에 사용하는 경우와 종이나 천에 바르고 적시고 싸서 환부를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肘後備急方』에 기재된 내용중 외치요법에 사용되는 ‘膏’ 형태의 약물 제조방법에는 “又方, 燒蜈蚣膏傅之, 卽差.”¹⁰⁴⁾와 같이 약재를 태운 가루를 반죽하여 만드는 방법, “劉涓子, 癩癬疽發壞, 出膿血, 生肉, 黃耆膏, 黃耆, 芍藥, 大黃, 當歸, 芎藭, 獨活, 白芷, 薤白各一兩, 生地黄三兩, 九物切,

95)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236.
96)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243.
97)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257.
98)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261.

99)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236.
100)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9.
101)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6.
102)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254.
103)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261.
104)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30.

猪膏二升半, 煎三上, 三下, 膏成, 絞去滓, 傅充瘡中, 摩左右, 日三.”¹⁰⁵⁾와 같이 약재를 찧어서 돼지 기름 또는 魚膏와 같은 동물성 지방과 함께 끓여서 만드는 방법, “丹參膏, 療惡肉, 惡核, 瘰癧, 風結, 諸脈腫, 丹參, 蒴藶各二兩, 秦朮, 獨活, 烏頭, 白及, 牛膝, 菊花, 防風各一兩, 茵草葉, 躑躅花, 蜀椒各半兩, 十二物切, 以苦酒二升, 漬之一宿, 猪膏四斤, 俱煎之, 令酒竭勿過燥, 去滓, 以塗諸疾上, 日五度, 塗故布上貼之, 此膏亦可服, 得大行即須少少服, 小品同.”¹⁰⁶⁾과 같이 약재를 술에 하루이상 담갔다가 동물성 지방과 함께 끓여서 만드는 방법, “甘家松脂膏, 療熱瘡, 尤喇膿, 不痴無癩方, 松脂, 白膠香, 薰陸香, 各一兩, 當歸, 蠟各一兩半, 甘草一兩, 並切猪脂, 羊腎脂各半合許, 生地黄汁亦半合, 以松脂等末, 內脂膏, 地黄汁中, 微火煎令黃, 下蠟絞去滓, 塗布, 貼瘡, 極有驗, 甘家祕不能傳, 此是半劑.”¹⁰⁷⁾와 같이 蜜蠟 및 동물성 지방을 약재와 함께 끓여서 만드는 방법, “姚氏, 耳痛有汁出方, 熬杏仁令赤黑, 搗如膏, 以綿裹塞耳, 日三易, 三日即愈.”¹⁰⁸⁾와 같이 약재를 볶아서 짓이겨서 만드는 방법, “成膏, 清麻油十三兩, 菜油亦得, 黃丹七兩, 二物鐵鑪文火煎, 蠶濕柳批篋, 攪不停, 至色黑, 加武火, 仍以扇扇之, 攪不停, 烟斷絕盡, 看漸稠, 膏成, 煎須淨處, 勿令雞犬見, 齒瘡帖, 痔瘡服之.”¹⁰⁹⁾와 같이 식물성 기름을 줄여서 만드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膏를 만들기 위하여 약재를 기름과 함께 가열할 때에도 센불로 마냥 가열하여 줄이는 것이 아니라 三上三下¹¹⁰⁾ 등과 같은 일정

105)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43.

106)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48.

107)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58.

108)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p. 184-185.

109)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254.

110)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254.

“神明白膏, 療百病, 中風惡氣, 頭面諸病, 青盲, 風爛背鼻, 耳聾, 寒齒痛, 癰腫, 疽痔, 金瘡, 癬疥, 悉主之. 當歸, 細辛各三兩, 吳茱萸, 芎藭, 蜀椒, 朮, 前胡, 白芷各一兩, 附子三十枚, 九物切, 煎猪脂十斤, 炭火煎一沸即下, 三上三下, 白芷, 黃膏成, 去滓, 密貯, 看病在內, 酒服如彈丸一枚, 日三, 在外皆摩傅之. 目病, 如黍米內兩眇中, 以日向天風可扇之. 瘡蟲齒, 亦得傅之. 耳內底著亦療之. 緩風冷者, 宜用之”라는 내용을 볼때, ‘三上三下’는 불위에 세 번 올렸

한 강도와 횟수의 기준이 있었다.

3) 外治의 방법 및 이론

『肘後備急方』에서는 熏法, 藥浴療法, 敷貼療法 등 다양한 외치요법이 기재되어 있다.

熏法은 주로 「治傷寒時氣溫病方第十三」의 “又方, 燒艾於管中薰之, 令煙入下部, 中少雜雄黃妙, 此方是溪溫, 故爾兼取彼治法.”¹¹¹⁾과 「治中風諸急方第十九」의 “若手足不隨方, 取青布燒作煙, 就小口器中燻痛處.”¹¹²⁾처럼 약물을 태워 연기를 쐬는 방식을 사용하여 약물을 끓여 熏蒸하는 방식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外感傳染性 질환과 정신질환에 사용되었다.

藥浴療法은 환부를 약물에 담그거나 적시는 방식과 씻어내는 방식 두 가지 모두 사용되었는데, 환부를 약물에 적시는 방식은 「治卒身面腫滿方第二十四」의 “又方, 杏葉剉, 煮令濃, 及熱漬之, 亦可服之.”¹¹³⁾과 「治卒陰腫痛類卵方第四十二」의 “陰莖中, 卒痛不可忍, 雄黃, 礬石各二兩, 甘草一尺, 水五升, 煮取二升, 漬姚云, 療大如斗者.”¹¹⁴⁾ 등 다양한 질환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씻어내는 방식 역시 「治卒得蟲鼠諸瘻方第四十一」의 “又瘻方煎桃葉枝作煎淨洗瘻了內孔中大驗方”과 「治面皴髮禿身臭心昏鄙醜方第四十九」의 “又方麻子仁三升白桐葉一把米泔煮五六沸去滓以洗之數之則長”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 되었으며, 「治面皴髮禿身臭心昏鄙醜方第四十九」의 “又方蔓荊子三分附子二枚碎酒一升合和器中封二七日澤沐十日長一尺勿近面上恐有毛生”에서는 약물을 이용한 沐法에 있어서 두발에 사용하지 않고 얼굴에 바를 경우 얼굴에도 털이 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敷貼療法 역시 상당히 넓은 영역에 걸쳐 기재되어있는 외치요법이며, 敷貼療法 관련 내용에서 「治百病備急丸散膏諸要方第六十九」의 “丹參膏,

다가 세 번 식혀서 만드는 것이며, 내릴 때에는 일단 끊으면 내린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11)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45.

112)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67.

113)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94.

114)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72.

療傷寒時行賊風惡氣，在外，即支節麻痛，喉咽痺寒，入腹，則心急脹滿，胸脇痞塞，內則服之，外則摩之，并癱緩不隨風濕痺不仁，偏枯拘屈，口喎，耳聾，齒痛，頭風，痺腫，腦中風動，且痛若癱，結核漏，癰癧堅腫，未潰傳之，取消，及丹疹諸腫無頭，狀似骨疽者，摩之令消，及惡結核，走身中者，風水遊腫亦摩之，其服者，如棗核大，小兒以意減之，日五服，數用之，悉效，丹參，蒴藶各三兩，莽草葉，躑躅花各一兩，秦艽，獨活，烏頭，川椒，連翹，桑白皮，牛膝各二兩，十二物，以苦酒五升，麻油七升，煎令苦酒盡，去滓用如前法，亦用豬脂同煎之，若是風寒，冷毒，可用酒服，若毒熱病，但單服，牙齒痛，單服之，仍用綿裹嚼之，此常用豬脂煎藥，有小兒耳後澀子，其堅如骨，已經數月不盡，以帛塗膏貼之，二十日消盡，神效無比，此方出小品。¹¹⁵⁾에서는 동일한 방제를 의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內則服之外則摩之’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內治와 外治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素問·至真要大論』의 “內者內治，外者外治”라는 내용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으며, 『金匱要略』이나 『脈經』에서 ‘外者外治’의 개념이 病所가 體表에 있다는 해부학적 체표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달리 病邪가 表에 있다는 개념으로 확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治百病備急丸散膏諸要方第六十九」의 “主心腹積聚，四支痺躄，舉體風殘，百病效方，華佗虎骨膏，療百病，虎骨，野葛各三兩，附子十五枚，重九兩，椒三升，杏仁，巴豆，去心皮，芎藭，切，各一升，甘草，細辛各一兩，雄黃二兩，十物苦酒漬用時，豬脂六斤，微煎三上三下，完附子一枚，視黃爲度，絞去滓，乃內雄黃，攪使稠和，密器貯之，百病皆摩傳上，唯不得入眼，若服之，可如棗大，內一合熱酒中，須臾後拔，白髮，以傳處，即生，烏諸瘡毒風腫及馬鞍瘡等，洗即差，牛領亦然。”¹¹⁶⁾라 하여 외치요법을 사용하여 안과질환을 치료할 때 안약의 藥性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治癰疽妬乳諸毒腫方第三十六」의 “若惡肉不盡者，食肉藥食去，

以膏塗之，則愈，食肉方，取白炭灰，荻灰，等分，煎令如膏，此不宜預作，十日則歇，并可與去黑子，此大毒，若用效驗，本方用法。”¹¹⁷⁾라 하여 膏劑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膏劑의 제조 당시 생성되는 약물과 부산물을 엄격히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후대 『千金要方』의 「合和第七」에서 “凡合膏先以苦酒漬令淹浹不用多汁密覆勿泄云晬時者周時也從今旦至明日亦有止一宿煮膏當三上三下以泄其熱勢令藥味得出上之使匝匝¹¹⁸⁾沸乃下之取沸靜良久乃止寧欲小生……絞膏亦以新布絞之若是可服之膏膏滓亦堪酒煮飲之可摩之膏膏滓則宜以傳病上此蓋欲兼盡其藥力故也”¹¹⁹⁾라 하여 膏劑를 만들 때 만들고 남은 찌꺼기 역시 환부에 바르는 것이 약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다.

Ⅲ. 結論

1. 활용범위

魏晉 時代의 의학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脈經』, 『肘後備急方』에서는 內科, 外·皮膚科, 五官科, 婦產科, 神經精神科, 獸醫科 영역에서 外感, 傷寒, 中惡, 霍亂, 便秘, 下痢, 狐惑, 癰疽, 面皰, 髮禿, 卒中沙虱毒, 陰中蝕瘡爛, 鼻塞, 目赤痛, 耳聾, 陰冷, 妬乳, 陰腫, 鬼擊, 卒躄寐不寤, 牛馬六畜水穀疫癘諸病 등의 질환을 외치요법으로 치료한 기록이 있으며, 漢代의 의학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內經』, 『傷寒論』, 『金匱要略』에서는 內科, 外·皮膚科, 五官科, 婦產科 영역의 外感, 痺症, 便秘, 臟腑病, 百合, 癰疽, 浸淫瘡, 陰中蝕瘡爛, 狐惑, 鼻塞, 陰冷, 陰吹 질환을 외치요법으로 치료한 기록과 비교할 때 前代에 비하여 치료영역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外治療法의 특징

魏晉 時代에는 『脈經』에서 “寸口脈緩，皮膚不仁，風寒在肌肉，宜服防風湯，以藥薄熨之，摩以風

115)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p. 253-254.

116)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p. 251-252.

117)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42.

118) 匝匝: ‘가득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

119)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大星文化社, 서울, 1992, p. 32.

膏, 灸諸治風穴.”¹²⁰⁾라 하여 風寒邪가 肌肉에 있을 때 外治療法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肘後備急方』에서는 동일한 약물을 사용하여 병사의 소제에 따라 ‘內則服之外則摩之’¹²¹⁾하는 치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內經』의 “外者外治”가 좀더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肘後備急方』에서는 蟲傷, 神經精神科疾患, 獸醫科 영역 질환에 대한 외치요법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의 外治方法과 劑型을 살펴보면, 摩, 熏, 導, 熨, 洗, 坐藥의 방법을 이용한 치료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湯劑 혹은 汁液을 이용한 외치법, 散劑를 이용한 외치법, 약물의 원래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외치법, 膏를 이용한 외치법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肘後備急方』에는 알콜을 이용하여 성분을 추출할 경우 三上三下를 이용하여 膏劑를 만드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9. 申光浩, 韓醫外治療法學, 대성의학사, 서울, 2000.
10. 이병욱 외4인, 千金要方에 기재된 藥浴療法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17(1),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4, pp. 198-217.
11. 任玉讓, 中醫內治與外治, 世界圖書出版公司, 西安, 2000,
12. 張年順, 中醫綜合類名著集成·理論駢文, 華夏出版社, 北京, 1998.
13. 張樹生, 王芝蘭, 古今中藥外治真傳,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1.
14. 정재서, 산해경, 민음사, 1997.
15. 秦云峰, 張小平, 中醫外治療法集萃, 內蒙古科學技術出版社, 赤峰市, 2002.
16. 홍원식, 윤창열, 증보중국의학사, 일지사, 서울, 2001.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員, 서울, 1985.

IV. 參考文獻

1.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2. 구병수, 이동원, 儒門事親, 동국대학교출판부, 서울, 2001.
3. 邱天道, 本草外用指南, 軍事醫學科學出版社, 北京, 2001.
4. 김미정, 정진홍, 대하에 대한 침구치료와 외치요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논문집10(1),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2001, pp. 79-92.
5. 박현국 외2인, 중국과학기술사의학편, 일지사, 서울, 2003.
6.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7.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五洲出版社圖書有限公司, 台北, 미상.
8. 申光浩, 漢方外用藥, 열린책들, 서울, 1994.

120)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69.

121)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p. 253-254.

“丹參膏療傷寒時行賊風惡氣在外即支節麻痛喉咽痺寒入腹則心急脹滿胸脇痞塞內則服之外則摩之……此方出小品”